

PUBLICATION

인간은 누구나 울고 싶다

당신이 남자여서 불쌍한 것이 아니다

한미화 | 출판칼럼니스트

정희진은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한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가부장적 신념이 강한 사회인데도 왜 남성을 약하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할까” 라고 반문을 제기한다. 왜 그토록 강한 남성들이 열등한 여성들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남성들의 응석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울고 싶은 남자들, 작아지는 남자들, 요즘 남자들을 두고 언론이 하는 말이다. 특히 중년의 남자들을 조망한 기사를 보면 언제부터 남자들이 이렇게 불쌍해졌나 싶다. 50대에 접어들어 갑자기 부인과 사별하게 된 한 남편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자 “미누라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는 시시껄렁한 농담이 있었지요. 30대 댄 친구들과 그런 농담하며 깔깔거리곤 했는데……. 막상 현실로 닥쳐 봐요.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안 겪어 보면 상상조차 못합니다.”

은퇴를 한 중년 남성은 “예전에 탑골공원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노인들을 보면 ‘왜들 저러고 계신가. 친구들이라도 만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머지않아 나도 저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라고 처량하게 말한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북한산으로, 대중사우나로, 골프연습장으로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한다며 혼자 돌아다녔지만 수입도 없는 처지에 그 생활을 오래 할 수도 없었다” 라며 고개를 떨군다.

그뿐만인가. “청동기·철기 시대 이후 누려온 남성권력 2000년의 해가 저무는 문명사적 정후가 보인다. 이제 여성들이 남자들을 애물단지 취급을 하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 권위주의와 자기애에 갇힌 동굴 속의 황제라고 고백하는 남성 사회학자의 고백까지 줄을 잇는다” 는 머리글과 함께 ‘작아지는 남자’ 를 메가 트렌드로 간주하고 관련 출판물을 분석하는 기사도 보인다.

물론 이 테마기사를 쓴 중년의 기자는 여전히 자신이 수컷으로서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기사를 마무리하며 시오노 나나미를 불러들인다. “여자들은 몸이 근질근질해요. 남자들이여, 제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줘요. 이 사랑을 대체 누구에게 바치란 말이죠.”

이게 끝은 아니다. 수컷의 본능을 부추기는 시오노

나나미의 목소리로만은 부족했던지 문정희의 「다시 남자를 위하여」로 결론을 맺는다. 일부만 인용해보자. “여권 운동가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 멋진 잡음을 추방해 버린 것은 아닐까 / 비겁하게 치마 속으로 손을 들이치는 즐거움은 많은데 / 온 사막을 헤매며 / 검은 눈썹을 태우는 / 진짜 멋지고 당당한 잡놈은 멸종위기네.”

얼린 양다리는 어떻게 됐을까

3년 넘게 한 프로그램에서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유독 어떤 책을 소개하면 티가 나게 좋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면 로알드 달의 『맛』이라는 단편집 중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은 소설을 소개할 때가 그렇단다. 어떤 내용이고 하니, 경찰인 남편이 임신 6개월째인 아내에게 저녁 시간에 돌아와 헤어지자고 느닷없이 말한다. 아내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냉장고에서 얼린 양다리를 꺼내 식사준비를 하려하지만, 남편은 필요 없다며 끝장이라며 나가려고 한다. 순간 아내는 얼린 양다리고 남편의 뒷통수를 내리친다(그리고 나서 아내는 양다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후를 이야기하는 건 스포일러에 해당한다. 읽어보시길).

혹은 정이현의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란다. 소설집이 재미나서이지 웃음소리가 정말로 유별나서 일까라고 우기고 싶지만 좋아했던 책들의 범주가 정해져 있기는 하다. 정이현의 소설집에는 이런 단편들이 있다. 「트렁크」에서 여자는 내연의 남자를 혼자 힘으로 들기에도 목직한 크리스털 꽃병으로 뒤통수를 후려친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의 시체를 트렁크에 넣는다. 그러며 스스로의 손으로 하지 못할 일이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중얼거리고 청소를 마치고 밀려든 줄음을 물리치며 화장을 지운다. 「순수」라는 단편 속의 여자는 세 번 결혼했는데, 어떤

일인지 그때마다 남편들이 죽고 거액의 유산을 남겨줘 어쩔 줄 모르겠다며 손을 가로졌는다.

책 속의 여자들이 달라지긴 달라졌다. 공선옥의 소설 속에 등장한 여자들은 삶에 치열했고, 신경숙 소설에 등장한 여자들은 청승맞았다. 은희경의 소설에 등장한 여자들은 위악적이었고, 전경린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집을 나갔다. 과거 소설 속의 여자들은 가정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여성으로 주체성을 깨닫기 위한 방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다. 소설 속의 여자들은 설혹 그 소설이 페미니즘 소설이었다 해도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최근 30대 초반의 여자들이 쓴 책을 보면 그렇지 않다. 앞서 소개한 정이현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내추럴 본 쿨 걸’ 들이 대표적이다. 사회로부터 강요당한 여성성을 해체하고 전복하기 위해 노력한 선배들과는 달리 자신의 여성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소설 속 여성들은 선머슴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화장기 없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 어느 여자들보다 더 소녀적이고 더 청순하고 더 가련하다. 그런데 윗세대들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여성스럽게 변신한 여성들은 이제 사랑 때문에 울지 않는다. 아예 사랑 따위는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런 의식의 변화는 여성패션지 『바자』의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의 「뷰티플 몬스터」를 읽으면서도 느껴졌다. 김경은 책에서 세상의 여자를 굳이 선한 부류와 나쁜 부류로 나눈다면, 자신은 나쁜 년들 그룹에 속한다고 정체성을 드러낸다. 여기서 나쁜 년이란 굉장히 강한 자아를 지녔고 남자들을 농락하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여자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걸 여우처럼 이용하는 여자들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불편한 심기를 알려야 직성이 풀리

는데, 사람들은 이런 인간을 나쁜 여자라고 말한다.

김경이 말하는 강한 자아를 가진 인간이란 굳이 여자들만이 아니다. 전시장에 태연하게 남성 소변기를 들여놓고 그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며 살았던 뒤상이나 <해피엔드>에서 정부를 만나러 나가기 위해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남편 손에 죽어 마땅한 못된 년을 연기할 줄 아는 전도연 같은 이다. 혹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이면서 메이크업에 반대하고 노 메이크업으로 다니는 여자 미애일 수도 있고 앞니가 벌어진 모습으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영화배우이자 가수 제인 버킨이나 쉬운 살인데 스물여섯 살 연하의 세 번째 남편을 대동한 채 요란한 차림으로 댄스 파티장에 가는 혈기 왕성한 노파인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이들이다. 그렇지만 김경은 도시에서는 인간보다는 여자로 남아 있는 쪽이 더 살기 좋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심지어 간첩으로 몰려 죽는 순간까지도 유혹적인 여자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마타하리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여자로 폐업하면 인간으로도 격하된다는 논리다.

책 속에는 아티스트 낸시랭이 소개되는데, 정이현의 소설 속 주인공을 떠올리게 한다. 낸시랭은 좌파적 성향이 있고, 담배를 피워대는 김경에게 이런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전수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교의 힘으로 세상을 날로 먹자”고 한다(낸시가 가르쳐준 디테일한 애교의 기술을 보고 있자면 난 여자인데도 야옹소리가 나왔다). 낸시랭의 충고를 몇 마디 들어보자.

“애교의 핵심은 선뎡이에요. 난 니가 좋아, 하고 먼저 표현하는 거라구요. 물론 항상 진심이어야 하고 아이처럼 보다 친진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강아지처럼 먼저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땐 내가 아주 예쁜 고양이라고 생각하세요. 크림색의 에메랄드 빛이 도는

아주 탐스러운 고양이……. 그리고 소리 내세요. 야~옹~”

남자들, 여전히 응석이 심하다

나 역시 20대 초반 페미니즘 계열의 책을 읽으며 여자로서 산다는 일에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내 페미니즘은 잊었다. 막상 살아보니 페미니즘은 광고나 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생활에는 써먹을 도리가 없었다. 구제금융 이후에는 페미니즘이란 게 있었나 싶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정말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자들은 점점 드세지고 남자들은 점점 작아진다고 야단이다. 정치학자 권혁범의 표현대로 ‘페미니즘의 폐자만 들어도 괜히 기분 나쁘고 후려치고 싶은 감정적 충동을 느끼는 남성들’도 여자들처럼 전략을 바꿔 멋진 마초 흥내를 포기하고 징징대기로 작정한 건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여자들은 자기 언어를 갖는 것에 대해 스스로 놀란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말이다. 김경은 약당처럼 생긴 택시기사에게 당신처럼 손님을 호구로 이는 불한당한테 절대로 택시 요금을 줄 수 없다며 호기 있게 내린 후, 얼마나 떨리던지 택시가 안 보이는 데까지 걸어간 후 미친 듯이 뛰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던 차 정희진의 「페미니즘의 도전」을 읽었는데, 여자로서 말하자면 속이 시원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어서 혹시 옆에 남자가 있나 조금 불안하기도 했다(그래서인가 이 책의 리뷰를 다룬 신문은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 밖에 없더라).

마음이 불안하니 여자들은 “제가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라고 연막을 친 후 자기 주장을 펴거나, “제가 바깥일을 하지만 애들 아침밥은 꼭 차려주고 나와요” 소리를 덧붙인다. 왜? 자기 권리를 외치는 여성

최근 30대 초반의 여자들이 쓴 책을 보면 사회로부터 강요당한 여성성을 해체하고 전복하기 위해 노력한 선배들과는 달리 자신의 여성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소설 속 여성들은 선머슴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화장이 없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사랑 때문에 울지 않는다.

을 사회가 싫어하니까. 여성에게는 권리보다는 의무를 요구하니까.

하지만 정희진이 파악하기에 “어떤 면에서 억압집단으로서 자본가와 미국이 저지른 잘못보다 억압 집단으로서 남성이 행한 잘못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지배계급으로서 남성은 5천 년 동안 피지배 계급인 여성을 때리고 죽이고 교환하고 사고팔고 해고하고 착취했다. 그렇다면 적이 아닌가.”라고 한다. 그런데도 왜 여성은 남성을 적으로 상정하는 것을 두려워할까(물론 정희진의 책을 꼼꼼히 읽으면 여성주의란 남성을 적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분명히 성별문제는 이해관계와 권력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지만, 사적인 문제 혹은 하찮은 문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사회를 변혁하거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운동과 비교해서 여성억압 문제는 너무도 사소한 문제이자 가정 안의 문제라는 취급을 받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그래서 한때 여성운동이 당한 비판 중 하나는 중산층 여성들의 한가한 소리라는 말이었는데, 마오쩌둥, 마르크스 모두 중산층 지식인이었지만 언제나 페미니스트만 중산층 지식인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

페미니즘을 두고 흔히 말술에 골초를 자처하는 저항하는 여성을 떠올리지만 여성주의는 남성사회를 설득하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말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말을 건네는 일이라는 게 책의 요지이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우리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남성이 불쌍하다는 담론이 만연하다. 남자도 불쌍하다. 남자도 피해자다 등등의 이야기 말이다. 정희진은 “한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가

부장적 신념이 강한 사회인데도 왜 남성을 약하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할까” 라고 반문을 제기한다. 왜 그토록 강한 남성들이 열등한 여성들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견 남성들의 응석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한국남성들의 응석이 우리 사회의 성숙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인 채.

책 속에서 남성들의 응석 이유가 딱 꼬집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책을 읽고나니 모든 여성은 어머니라는 사고가 낳은 결과는 아닌가 싶다. 모든 여성은 아이를 낳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돌보기를 즐기고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남자에게 여성은 어머니나 누이가 아니면 절대 여성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독 스위트 홈과 자녀양육을 여성에게 그토록 강조한다. 때때로 사회면 기사에서 남편의 구타를 견디다 못한 여성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는 식의 기사를 접할 경우가 있다. 기사의 핵심은 여성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버리고 간 모진 모성에 비난의 화살이 돌려진다. 정희진은 만일 그토록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아버지가 육아를 담당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우리에게는 현대사를 통틀어 익숙한 부부상이 있다. 나약하고 무기력하나 폭력적인 아버지와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하지만 아버지 뒤에서 제 할일을 다하는 지혜로운 어머니상이다. 유독 한국에서만 고정된 이런 성역할은 서구의 젠더 이미지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당당하게 서비스를 요구하면 스스로도 사회적으로도 불편하다. 우리 사회가 이준마를 혐오하는 실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남자들아, 인간은 누구나 얼마만큼은 외롭고 불쌍하다. 당신이 남자여서 불쌍한 것이 아니다. 🍷